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일시	2016. 10. 31.(월) 배포시	배포일시	2016.10.31.(월)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(044-215-2750)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유법민 (044-203-4330)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이동훈 (02-2100-2920)	담당자	염철민 사무관 (044-215-2754) yum7157@korea.kr 박태현 서기관 (044-203-4331) pthtop@motie.go.kr 김정주 사무관(02-2100-2921) bluesky3@korea.kr

제목 : 2016. 10. 31(월) 문화일보 「'빅2체제 개편' 등 핵심 빠져... '민감 사안'은 차기 정부로」 제하 기사 등 관련

※ 문화일보, 아시아경제 등은 금번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①'빅2체제 개편' 등 핵심은 빠졌으며, ②'민감 사안'은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하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 동력이 상실되었고, ③'지난 6월 대책 등 기존대책을 짜깁기한 수준'이라고 보도하였는 바,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

① 개별 기업의 규모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, 정부가 인위적으로 빅3 또는 빅2체제 등으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

- 특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“빅2체제 개편”의 전제가 되는 대우조선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채권단이 회사의 정상화 가능성,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
- 대우조선은 상선과 방산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·전문가들의 평가
 - 따라서,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

② 그간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·기업 구조조정에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매진해 왔음

- 특히,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과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

- 앞으로도 정부는 당장의 임시방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,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확고한 당사자 책임 원칙하에 구조조정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

③ 지난 6월 대책에 비해 금번 발표된 대책은 보다 넓은 시계(視界)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했음

- 6월 대책은 '18년까지의 전망을 토대로 개별 조선사들의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극복 차원에서 각 社별 자구계획을 중심으로 마련
- 금번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6월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음

① 2020년까지 시계를 넓히고,

- 고강도 자구계획·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·선박서비스 등 유망분야 발전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

② 컨틴전시 플랜 조기완료('20→'18년) 등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해결

* 대우조선 자구계획 예시

- 6월: '20년까지 인력 4.4천명 감축 등 5.3조원 자구 이행 + 컨틴전시 플랜 준비
- 10월: 컨틴전시 플랜 가동을 통해 5.5천명 감축 등 5.3조원+a 자구 이행 및 모든 자구계획을 당초 '20년에서 '18년까지 조기 완료

③ 산업 전체적인 과잉설비 축소 뿐만 아니라, 각 조선사별 핵심 역량 집중 분야 등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방향을 제시

④ 산업정책 차원에서 우리 조선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제시

* 건조 일변도의 '조선산업'(Ship Building Industry) → 고부가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'선박산업(Ship Industry)'으로 전환)